

중학교 옆 폐기물 처리시설 완도교육지원청 ‘나몰라라’

교육환경 보호 외면...군외중학교 학부모들 소송·비산먼지 우려 강력 반발

완도의 한 중학교 인근에 건설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가 추진돼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이 시설부지는 중학교 주요 통학로 중 하나로, 시설물이 들어설 경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은 물론 학습권 등을 침해받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완도교육지원청은 관련 법안을 도대로 적극 대응할 수 있음에도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2일 전남도교육청과 완도군 등에 따르면 완도 A산업이 지난달 중순 군외면 군외중학교와 287m 가량 떨어진 부지(대지면적 5104㎡·건축면적 336.22㎡)에 건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군은 신청서가 접수되자 지난달 30일 해당 시설물이 들어설 경우 대형 트럭이 학교 앞 도로를 통행하면서 소음·비산먼지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크게 해칠 것으로 판단, 해당 시설물 설치 인·허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 의견을 줄 것을 완도교육청에 요청했다.

하지만 완도교육청은 관련법률 검토 의견 회신 공문을 통해 해당 시설물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외 지역으로, 심의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보냈다. 이 시설물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이외에 위치해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교육청은 다만, 회신 공문에 ‘예정 건축물의 용도·위치를 감안하면 학생들의 통학로(폭 2.5m~3m)와 폐기물 운반 차량 통행로가 겹쳐 등·하교시 안전 문제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을 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행정적 검토를 부탁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군과 완도교육청을 상대로 해당 시설물 설치반대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군은 이에 따라 ‘그 밖의 관할 구역의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 위원장이 회의에 부칠 수 있다’는 등의 관련법을 근거로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해당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해당 안전에 대한 상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2차 공문을 보냈다. 해당 시설물이 교육환경보호구역 외 지역에 설치되더라도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시설물이라면 관련법에 따라 심의에 부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육부 담당자도 관련법상 ‘그 밖의 관할구역’이라 하면 교육환경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을 말하는데, 해당 구역 이외의 지역이라도 교육환경 보호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심의를 할 수도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아직까지 군이 요구한 두 번째 공문에는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이같은 대응은 학생 교육환경보호에 최일선에 서야 할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직접 나서 해당 시설물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완도교육청이 되레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꼴이다. 누구를 위한 교육청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학생들이 피해 당사자다. 타 지역의 경우 학교장의 의견을 공문으로 보내 사례도 있다”면서 “완도교육청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보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eichung@kwangju.co.kr



“중장기 교원수급정책 수립하라” 광주교대 학생들이 12일 학교 본관 앞에서 중장기적 교원수급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동맹휴업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문제인 정부는 OECD 평균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국방부 5·18특조위, 전일빌딩 현장방문

헬기사격 탄흔 조사

5월단체 등과 면담도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출범(11일) 이틀만인 13일 광주를 찾아 헬기 사격 탄흔이 발견된 광주 전일빌딩(옛 광주일보 사옥) 등지를 둘러본다.

특히 특조위는 광주시, 5·18단체와 5·18기념재단 관계자 등과 면담을 갖고 ‘광

주 시의 목소리’를 듣는다.

광주시는 “이건리 위원장 등 9명의 특조위원들이 13일 5·18 민주화운동 현장 방문을 위해 광주에 온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전일빌딩을 찾아 헬기 사격으로 추정되는 탄흔이 발견된 현장을 직접 볼 예정이다. 이어 5·18 기록관에서 5월 단체장과 면담을 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5·18 기념재단과 주요 단체는

“국방부가 지난 37년간 진상규명에 소극적이고 은폐하는 태도를 보였고 법적 강제력이 없어 조사 및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에는 불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건리 위원장은 “위원들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광주로 가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인식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현장 시찰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5·18재단, 자체 진상규명위원회 꾸렸다

전문가·언론인·법조인 등 18명... 암매장지 2곳 확인 나서

5·18기념재단(5·18재단)이 국내외 전문가와 언론인, 법조인 등이 참여한 5·18 진상규명 위원회(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 조사에 나섰다.

위원회는 최근 출범한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와 별개로 진실 규명 활동을 벌인 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국회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면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꾸렸다.

12일 5·18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현재 국내외 5·18 연구자와 법조인, 언론인 등 16~18명으로 5·18 진상규명 위원회(가칭)를 꾸리고 자료·정보 검증 등 기초작업을 하고 있다.

5·18재단은 소장하고 있는 1988년 국회 청문회, 1995년 검찰 수사,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기록을 바탕으로 본격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그동안 5·18 재단이 조사해 온 내용과 재보, 확보한 기록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사안별로 나누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군 전문가 등과 협력해 5·18 당시 군사 작전도 살필 계획이다.

재단은 지금까지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희생자 암매장지 1,2곳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된 암매장지

는 신빙성이 있는 곳으로, 재단은 풀이 무성한 여름철을 피해 늦가을께 본격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재단이 5월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린 것은 군 5·18특별조사위원회의 제한적 역할과 관련 있다. 재단과 5월 단체는 헬기 기총소사·전투기 폭격실 위주로만 조사하고 수사권이 없는 국방부 조사단에는 불참을 선언했다.

김양래 5·18재단 상임이사는 “재단에서 진행된 그동안 활동이 5·18 진상규명 방향, 이슈, 해외 현안을 살폈다면 이번에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5·18진상규명 특별법의 한계와 앞으로 조사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출소 한달만에 또 식당서 행패

광산경찰, 40대 주폭 저격

교도소를 출소한 지 한달여만에 또다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40대 동네 주폭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산경찰청은 “음식점 내에서 심한 욕설을 일삼고, 행패를 부린 이모(49)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일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의 한 식당에서 주인 김모(여·58)씨를 큰소리로 위협하고 식당 안에 있는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1시간 가까이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이씨는 또 식당 주인인 김씨가 경찰에 신고 하자,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쇠젓가락을 김씨를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전과 52범으로 지난 7월 28일 대전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출소 이후에도 1차례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5·18재단, 아시아인권위서 아웅산 수치 관련 입장 발표

광주일보의 ‘아웅산 수치, 광주인권상 수치되나’ 보도(12일자 7면)와 관련, 광주에서 열리는 ‘아시아인권위서아웅산 수치’ 광주인권상 수상자들이 ‘미안마 인종 청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

5·18기념재단은 “오는 15일 홍콩의 아시아인권위원회(AHRC)와 공동 주관하는 ‘아시아인권위서아웅산 수치’ 기자회견에서 미안마의 로HING아 부족 수난에 대한 5·18 재단, 광주인권상 수상자 그룹, 위크숍 참가자들의 입장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본 행사에서도 최근 불거진 미안마 정부의 로HING아족 ‘인종청소’ 논란이 심도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인권위서아웅산 수치’는 14~17일 광주금대중간센터에서 열리는 ‘2017 세계인권도시포럼’ 행사의 하나로, 광주인권상 수상자 바실 페르난도(스리랑카) 아시아인권위원회 대표와 수실 파큐렐 전 네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아시아 인권전문가 13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만취 50대 마트에서 춤추고 여주인에 “강아지야” 희롱



○...술에 취한 50대 택시기사

가 마트에서 춤추고 여주인을 희롱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서행. ○...12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유모(52)씨는 11일 오후 7시50분경 광주시 북구 김모(여·49)씨의 마트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한 뒤 계산대 앞에서 20분간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이에 항의하는 여주인

김씨를 ‘강아지’라고 부르는 등 희롱했다는 것.

○...김씨는 담당 경찰에게도 반말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만취해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처벌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담양군 고서면 고읍리 현성업종
조청가

토지 1497평
건물 180평
야외결혼식 매매가 16억

동구 금남로2가 중심상가
경매물건

토지 488평
건물 6008평
감정가 25,143,000,000
최저가 17,600,000,000

【법원 경매/공매】

토 지	일 반 물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순군 북면 서유리 서유마을인근 잡종지 토지 3473평 감정가 183,000,000 최저가 128,000,000 ▶북구 효령동 효령노인복지타운입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295평 감정가 202,000,000 최저가 202,000,000 ▶해남 북평면 이진리 바닷가인근 교육시설 토지 3606평 건물 226평 감정가 273,000,000 최저가 273,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구 치평동 세정 아울렛빌 도로가 중심상가 4층건물 현재 영업 중 토지 133평 건물면적 90평 매매가 23억 ▶서구 풍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인근 근린시설 현재 영업 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서구 치평동 소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업종 가능 매매가 17억 ▶서구 마북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청가 ▶서구 마북동 상무현대신축플러시아파트 입구 46.2평 매매가 3억 ▶담양군 대덕면 장산리 전원주택 최적지 유휴관리권 토지 359평 평당 40만원 ▶서구 치평동 중심상가 삼성화재인근 토지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1억 ▶장성군 진원면 함림리 366 전 도로접 토지200평 매매가 1억4천 ▶담양군 대덕면 장산리 전원주택 최적지 유휴관리권 토지 359평 평당 40만원 ▶담양군 남면 장산리 전원주택지 1종일반주거지역 무등산자락 토지 456평 3억 조청가 ▶태양광가능 평당 2만원 강진 신전면 수양리 임야 42000평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임야 토지 6714평 매매가 3억5천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11필지 자연녹지 대나무 생태공원조성사업 2540평 5억 5천만원 ▶나주 금천면 오강리 자연녹지 과수원 1600평 4억
근 린 시 설	공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곡성군 오곡면 미산리 마북동마을인근 사찰 토지 1575평 건물 183평 감정가 1,200,000,000 최저가 673,000,000 ▶북구 문흥동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주아파트인근 토지 612평 건물 83평 2층건물 감정가 962,000,000 최저가 962,000,000 ▶북구 중흥동 3층건물 광주역인근 토지 172평 건물 388평 감정가 961,000,000 최저가 961,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성 서삼면 송현리 환경에너지 토지 1361평 건물 372평 감정가 938,000,000 최저가 336,000,000
일 반 물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구 운암동 중흥아파트인근 수직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가 520,000,000 ▶담양군 담양읍 태미널인근 로터리 중심상가 대지 144평 건물 2층 매매가 11억 	

010-3070-2147 유 여 사 **투자금 100% 보장** **010-8559-8905 이용국 팀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